

김용민브리핑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쫌!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즈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업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매몰은	032-519-4800
네펜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넥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메이드바이어스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골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황교안은 김병준의 미래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휴대전화 문자로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습
 니다. 국정 2인자. 사실상의 부통령 권력은 이렇게 허망하게 종
 지부를 찍었습니다. 회한이 많았을 겁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의
 악행이건만 그에 따른 비난과 욕설을 대신 받아가며 온갖 방패
 막이 노릇을 했으니깐요. 하지만 황교안 씨는 제 아무리 박근혜
 씨와 코드를 맞춰도 진골이 될 수 없을 운명이었습니다. 최순실
 을 정점으로 한 비선 권력이 아니었으니깐요.

새로운 총리로 김병준 씨가 내정됐습니다. 국회 동의를 거치기
 힘든 만큼 그가 총리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병
 준 씨는 총리의 권능을 100% 가동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어처
 구니없습니다. 누가 김병준 씨에게 그런 권력을 부여했다는 이
 야기입니까?

물론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는 박근혜 씨가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씨와 결이 다른 길, 즉
 사드반대 또 국정역사교과서 반대를 추진할까요? 아니 근본적
 으로 총리에게 내치 권한을 떼어줄 정도의 고도의 정치력과 분
 권의지를 지닌 박근혜 씨일까요? 그렇다면 상황이 여기까지 왔
 을까요?

최순실에게 직함이 있지 않았습니.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
 최태민도 역대 공직 기록에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올린 바 없습
 니다. 장시호, 정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선이 종적을 감춰
 빈자리가 된 권력을 공식라인이 장악할 여지는 없습니다. 지금
 도 청와대와 무관한 김기춘이란 또 다른 비선의 이름이 스멀스
 멀 등장할 뿐입니다.

당 대표시절부터 공식적인 회의와 논의에서 결정된 사항까지 뒤
 집기 일쑤였던 박근혜 씨 아닙니까? 이렇게 비선에 휘둘려 왔
 던 박근혜 씨, 공식라인을 불신해 왔던 박근혜 씨, 박근혜 씨가
 할 일은 얼굴마담 발탁이 아니라 해야합니다.

6.4지방선거 앞두고 모든 새누리당 의원이 하기 싫은 게 역력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라고 쓰인 손
 팻말을 들었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
 꾸려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집단은 이미 신뢰의 디폴트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야만이 답입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1월 4일(금) 1부 | 안종범 또 폭로 "차, 호텔에서 직접 뺨 뜯어"

[오프닝] 얼굴마담 바꾼다고 될 일인가·박근혜 선택은 하야 뿐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뇌물죄 빠진 최순실 영상·검찰 내부도 '봐주기 수사' 비판
- 박근혜 또 검찰 수사 수용? 그라비아 하나마나한 서면조사일 듯
- 김치국 속 수영하는 김병준·대통령 2선 후퇴는 혼잣말일 뿐
- 안종범 또 폭로 "박, 호텔에서 재벌회장들 만나 돈 달라 요청해"
- 최태민, 박근혜에 "女王 될 것, 부정 타니 친인척 접촉 피해라"
- 롯데 서류점수 하위권 정유라·어떻게 합격했을까
- [뉴스듣기능력평가] 총리도 유고면 대통령권한대행은 누가하냐
-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 북한 '도발 위협' 여전하네·국내 언론에서 증발된 '북한 보도'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미국 워싱턴타임스에 조명되는 박·최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 박근혜는 결코 김병준에게 경제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 대학생 시국선언 불투, 기성세대로서 청년에게 소망하는 것들
- [공화국 논평] 다시 기어나오는 채동욱에 대한 조치

수사 의지 없는 검찰

경향신문 뇌물죄 아닌 직권남용? 봐주기!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 혐의 대신 직권남용 죄를 적용했다. 기업들이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지만 청와대에게 대가로 받은 게 없으니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기업들이 대통령의 측근에게 포괄적 뇌물을 공여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박근혜가 아닌 노무현의 일이었다면 이들의 선택을 달랠겠지? 또한 직권남용은 뇌물죄보다 형량이 현저히 낮아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검찰, 박근혜 소환조사 안할 듯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을 조력한 것은 대통령 박근혜 씨의 뜻”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씨에게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다. 박근혜 씨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자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 의전 차원에서 서면조사가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민일보 안종범의 배신으로 차 수사 불가피

여권 관계자에 의하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 대통령 박근혜 씨가 재벌 회장들을 직접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 출연을 요청했다. 나는 심부름만 했다. 억울하다” 두 차례에 나눠서 총 7명의 회장들을 만났고 한번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서 만남이 이뤄졌다고 한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근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의 몸통이 박근혜 씨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권력욕(慾)으로 욕(辱)보려는 자

한국일보 김병준, 김치국에서 수영하는 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책임총리로서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경제와 사회 등 내치 분야에서 총리가 전권을 발휘하는 이원집정부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발언에는 야권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대통령 박근혜 씨의 2선 후퇴를 수용해 야권을 설득하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그러나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은 “내치는 총리, 외치는 대통령이 하는 식의 구분이 현행 헌법에서 가능하지 않다”며 박근혜 씨의 2선 후퇴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정국 주도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겨레 “권력에 눈이 먼 김병준의 건강부회”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정이 위기 상황이라며 총리직 수락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한겨레 사설을 소개한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발언은 건강부회의 극치다. 국정위기의 책임은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민심을 거스르며 총리를 하겠다는 건 국정 붕괴에 일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먼저 생각한 건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었다. 개인 영달을 위해 전직 대통령까지 왜곡하는 김 후보자에게선 최소한의 인간적 신의조차 찾아볼 수 없다. 권력 집착이 인간을 얼마나 타락시키고 눈멀게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병준 씨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은 촛촛남매

한국일보 최순실 차은택 퍼붓다보니 예산 부족

최순실 관련 예산으로 야당이 삭감을 공언한 액수는 5200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차은택과 관련한 문화 예산은 매년 규모를 더 늘려가며 2019년 까지 모두 7000억 원이 넘는 돈을 쓰도록 계획돼 있다. 문제는 최순실, 차은택과 관련된 정부 사업들의 효율성이다. 실적은 저조한데다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돈이 부족한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태민의 유훈통치

朝鮮日報 최태민 “박근혜는 여왕 될 사람”

조선일보가 최태민을 조사했던 노태우 정부 민정수석실의 보고서를 입수했다. 1980년대 말에 작성된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최태민이 대통령 박근혜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육영재단과 한국문화재단의 운영에 개입했다고 한다. 또한 최태민은 박근혜 씨에게 “여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친·인척을 만나면 부정을 타니깐 접촉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박근혜 씨는 2013년 대통령 취임 후 박근혜·박지만씨 두 동생을 청와대에 부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동생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태민의 행태는 최근 제기된 최순실 국정 농단의 그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김용민브리핑 광고 문의 kimyongminpd@gmail.com

朝鮮日報 최태민, 손주에 1천만 원 용돈을

고 탁명환씨는 신흥종교 및 이단문제 전문가다. 그의 생전 증언에 의하면 최태민은 구국선교단과 구국여성봉사단을 운영하면서 돈을 물 쓰듯 했다고 한다. 가끔 손주들에게 과자 값이라고 쥐여 주는 돈이 100만원짜리 수표일 때가 있었다고도 한다. 70년대 중반, 평범한 직장인 월급이 20만원도 안 되던 시절의 일이다. 이런 돈은 다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 최태민은 사무실에 앉아서 재벌 기업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것이 일과였다고 한다. 당시 큰영에 박근혜 씨를 팔아 대기업들에게 돈을 요구하면 상대방에서는 꺾잡도 못했다는 것이다.

정유라만 행복한 대한민국

東亞日報 정유라 보다 점수 좋아도 서류 탈락

동아일보가 이화여대의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평가 결과를 입수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유라는 1차 평가에서 서류평가 800점 만점에 350점을 받았다. 하지만 정유라 보다 50점 높은 학생은 서류평가에서 불합격했다. 또한 정유라는 면접 점수에서 지원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최종 합격한 6명의 학생 가운데 6등으로 턱걸이 합격을 했다. 이화여대가 합격권 밖의 정유라에게 면접 점수를 몰아 주기한 의혹이 제기된다.

'서울신문' 정유라, 0%대 초저금리 대출 특혜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을 조사하고 있다. 정유라에게 독일에서 연 0%대의 초저금리로 특혜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정유라는 최순실과 공동 소유한 강원도 평창 임야를 담보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약 3억원의 외화를 대출받았다. 그러나 은행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대출을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해주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한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역시 정유라에 대한 대출 금리 혜택은 은행 관행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하나은행 관계자를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최순실의 꺾발

세계일보 최순실, 기무사 인사에도 개입

최순실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 등 방위산업 쪽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순실의 방산 의혹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의 친분관계에서 시작됐다는 게 방위산업계의 정설이다. 여기에 더해 군 인사에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국군기무사 이재수 전 사령관의 경질이 대표적이다.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은 대통령 박근혜 씨의 동생 박지만과 육사 동기인데, 최순실이 군 내부의 박지만 라인을 밀어내려고 인사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있다.

朝鮮日報 문고리 3인방+禹, 대통령 행세

조선일보가 이근면 전 청와대 인사혁신처장을 만나 인터뷰를 나눴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가 청와대 일부 참모의 전횡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장·차관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려 해도 가로막았으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장관들과 공공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들어와 간섭을 했다고 한다.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통상 업무 범위를 넘어 정부·공공기관 인사 등 온갖 분야에 개입했다고 한다.

죽은 권력에만 강한 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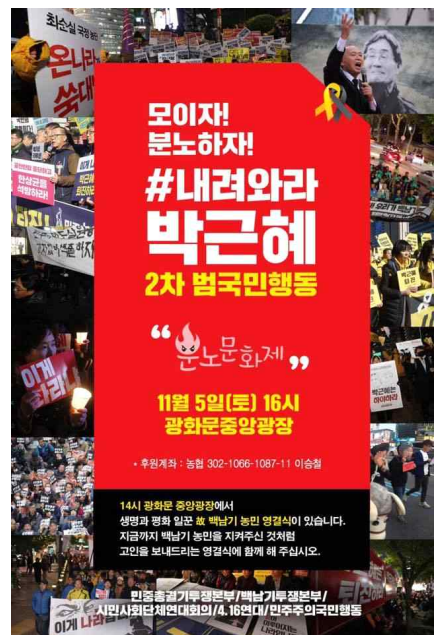
'서울신문' 우병우 오늘 검찰소환 조사 받나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아내 이모씨의 자금 거래 내역을 확인 중이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한지 두달이 넘어서야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것이다. 검찰은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횡령 단서를 포착했으며 그 액수는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수족 잘려나간 박근혜

중앙일보 새 문고리는 김기춘·최경환·이정현?

청와대 내의 측근들과 비서진들의 경질로 대통령 박근혜 씨의 공식 라인 참모진이 사라진 상태다. 박근혜 씨와 최악의 위기 국면에 함께 대응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먼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최근 박근혜 씨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또한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도 박근혜 씨와 전화 통화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씨와의 통화를 부인하고 있다. 야당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청와대의 대응을 총지휘하는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

오늘의 칼럼

중앙일보 최초의 '하야 요구' 칼럼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중앙일보 칼럼 “박근혜 최초·최대의 애국과 박근혜 이후”가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이다. 소개하겠다. “대통령은 지금 ‘국민적 탄핵 상태’와 ‘법률적 지위 유지’라는 이중 상황이다. 하야 과제는 분명하다. 우선 그는 국정 개입을 중단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로서는 최소 애국이다. 국정 파탄과 국가 표류를 방지하기 위한 자진 하야는 최대 애국이 될 것이다. 최대 애국을 권해드린다.

국민 탄핵을 당한 상태에서 현상 유지는 결코 안 된다. 국가를 위해 한국의 보수는 상당 기간 집권하면 안 된다. 민주화 이후 보수는 최초 10년 집권의 결과 국가를 환란의 나라에 빠뜨렸다. 두 번째 10년 집권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민생 파탄에다 국기 붕괴와 헌정 파괴까지 초래했다. 한국 보수의 실정과 악정은 당분간 치유 가능성이 없다. 집권하면 안 되는 이유다.

이제 국회와 국민은 난파된 민주공화국을 재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애국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할 민주개혁 세력의 능력은 필수가 됐다. 최악의 대통령을 배출한 헌법과 헌정 질서에 대한 전면 개혁도 필요하다. 조국의 비통한 현실을 바로 세워야 할 소명은 다시 국민에게 주어졌다. 대한민국을 이대로 침몰케 해선 결코 안 된다.”

중앙일간지에서는 처음 등장한 ‘하야 요구 칼럼’ 같다. 그러나 박근혜 씨의 애국과 일반 국민의 애국에 대한 개념 인식차가 상당하다는 점, 여러모로 낭패인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낮익은 유채이탈 화법이자,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책임 전가와 회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짜놓은 각본 안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대한 착각이다. 우리 국민은 이미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었고 앞으로도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범죄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국정농단 체제하에서 임명된 법무부장관과 기존 수사지휘부가 과연 자신의 주권을 헌법파괴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진정 의문이다. 대통령직 사퇴 없이는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엄정한 조사가 될 수 없는 이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불가 이유로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강조하였으나, 안보위기는 적

대의식으로 몽친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멈춘 지는 이미 오래며, 급기야 오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로 떨어졌다.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처럼 이 사건은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들’로부터 특정 개인이 이득을 취한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과 재벌이 협잡한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이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호텔에서 삼성·현대를 비롯한 재벌총수들을 직접 만나 모금을 강요했고, 그 결과 재벌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은 무려 약 800억원에 이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스스로의 공약을 뒤집은 채 선심 쓰듯 재벌총수들의 사면을 단행했다. 2016년 1월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악법 통과를 국회에 ‘지시’하고, 전경련이 주관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의 범국민 서명운동에 직접 서명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자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 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검찰

수사는 봐 주기 수사일 뿐이고 그에 대한 수사 협조 공언은 봐 주기의 사주 또는 구걸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은 특검의 수사를 통해 낱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대한 재벌들의 비자금 헌납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아 처벌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여 정부 중요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20년 전의 대법원 판례는 헌법을 유린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선언이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 진정성 없는 사과와 감성적 호소에 의존하지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모임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그 길 뿐임을 다시 선언한다.

2016년 11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